

# 추위 녹이는 자비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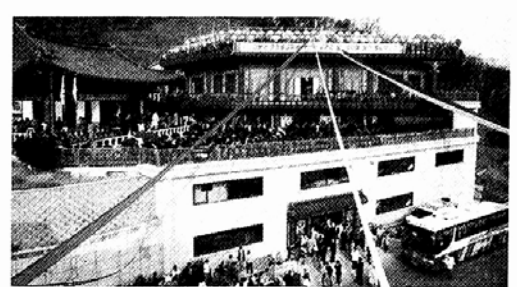
약사 보리회는 지난 13일 탑골공원에서 무료투약을 실시했다.

자비의 의술로 추운 겨울을 녹인다. 조선족 동포와 실직자, 무의탁 노인 등 병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진료를 펼치는 불자 의사 약사 보리회의 자비행이 각박한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강경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선재마을 의료회** 조선족·외국인근로자 진료  
**능인 의사회** 무료진료·의학상식 강좌도  
**약사 보리회** 실직자·노인등에 무료투약

강남 병은사 진료소에서 조선족, 외국인근로자, 실직자, 노숙자, 노인등 의료혜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한방 전과목 및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조선족과 외국인근로자 3백여명 등 총 8백여명을 진료했다. 강경구회장(강내과의원 원장)은 “의사 40명, 치과과사 40명, 간호사 20명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다”며 “현재 조계사를 다른사찰에서도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능인사회(회장 조수용)는 지역 노인과 불자들을 위해 능인선원 법당에서 2달에 한번씩 양방은 물론 한방 의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

일 탑골공원에서 실직자와 노인 1만 2천명에게 무료 진료와 투약 보시를 실시한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는 16일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보각스님(소적새마을 원장) 등 1백여명의 후원인들을 초청해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자비의 약손으로 불자의 사랑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연이어 창립된 선재마을의료회와 능인사회, 약사보리회는 조직을 확대해 새 천년을 맞는 내년에는 더욱 활기찬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교계의 의료봉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강릉사 불교회관 낙성·삼존불 봉안**  
천태종 강릉사(주지 일도)는 17일 종합불교회관 낙성 및 삼존불과 1053불 봉안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부인 한인숙여사, 김진선 강원도 지사, 함종한 한나라당불자회장, 이운선·박세관·유종수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과 신도 7천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 논산 입소대 법당 기공식**  
진각종(총리원장 성초)은 12일 육군 제2훈련소(논산) 입소대 대법당 신축불사 기공식을 성초 총리원장, 현진 조계종 포교부장, 정남기 훈련소장, 불교어머니회, 장병들 종단 및 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진각종이 건립비용 3억5천만원 전액을 지원한 입소대대 군법당은 오는 2000년 5월말 준공 예정이다.



**여불련 '남녀평등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미래 지향적 남녀평등의 방향'을 주제로 제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단국대 이영애 교수, 국회여성특위 박숙자 정책위원, 최정희 전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동국대 교육아동학과 백경민교수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동산반야회 창립 17돌 기념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3일 서울 안국동 동산법당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동산불교대학 졸업생과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법회에서 동산반야회 법주 무진장스님은 “항상 초발심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수행과 정진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참사람”

**유불동 서용스님 초청법회**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이사장 정덕)는 백운암 정년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초청법회(사진)를 개최했다. 2백여명의 불자들이 백운암 대웅전과 앞마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행된 법회에서 서용스님은 “20세기는 ‘욕망이 생명력’이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서양의 역사관에 의해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자연이 대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다른 의견을 자비심으로 융합하는 것이 참사람운동이며, 참사람운동의 요체는 모든 학문과 철학, 종교를 초월해 자유자재한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스님은 이날 참사람에 대한 계승을 들려주며 법문을 마쳤다. 靑山 依舊白雲中 壺中有佳乾坤 嶺上明月滿飛歌 日日新矣又日新 청산은 환구를 속에 옛날과 다름이 없



음이라/단지 가운데에 저절로 아름다운 건곤이 있도다/산봉우리 위에 밝은 달 청풍을 불이라/나날이 새로움이며 또한 날로 새로움도다. 정성운 기자

## 재소자에 합장주 보시할 분...

서울구치소불심회(회장 박종열)는 재소자들에게 줄 합장주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교무과 유화영씨는 “불심회에서 조달하는 합장주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며 재소자 교화와 포교에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불심회는 11일 도안사에서 월례법회를 봉행하고, 도운정사 주지 원봉스님은 “재소자들이 부처님 품에서 다시 태어나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0343)385-8035

## 무등벌서 영호남 친선교류 법회

**13개 운불회 무각사서**  
광주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용문)는 21일 광주 무각사에서 영호남 친선교류법회를 봉행했다. 광주, 전주, 경주, 포항, 대구, 부산 지역회를 포함 전국 13지역회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해 영호남 친선은 물론 전국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과시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전국 회원들만으로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김용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세기에 걸쳐 위정자들의 허우와 날조로 영호남이 대립과 반목, 그리고 갈등으로 얼룩져 왔다”며 “달리는 법당, 자비의 봉사자”를 표방하고 있는 운전불자들이 앞장서 부처님의 원용사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천운스님(창림사 조실)은 법문에서 “곳곳에서 활동하는 운불련 회원분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포교사로서의 긍지를 갖고 영호남이 화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회 후 5·18 망월동 묘역을 찾아 연화참배했다. 도필선 기자

## 우리 모임에선

- 심우회 장애인 돌기 바자**  
심우회(회장 이정청행)는 주몽재활원(원장 장선옥) 주최로 26일 오전9시~오후4시 재활원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제2회 주몽사랑나눔바자회에서 떡볶이 판매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무의탁 장애인들이 사용할 세탁기 구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날 바자회에서는 먹거리 품목과 의류, 문구류, 수공예품 등이 선보인다. 또 일일 사랑의 미용실도 열린다. 02)427-6572
- 스카우트 지도자회 운동법회**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0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운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조준영씨의 강사로 신심명(眞心銘) 강사가 진행했다. 02)2292-8502
- 청량리기관차 가정법회**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는 17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로 이사한 신철현 전 5대 회장의 집에서 ‘이사축하 가정법회’를 열었다. 이날 가정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축원, 사후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는 창립 이후 회원들에게 경조사가 있을때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취지에서 가정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02)965-9224
- 부산의료원 하루찾집**  
부산시립의료원불자회(회장 이상수)는 27일 중앙동 다전에서 애통병자를 위한 하루찾집을 연다. 이날 수익금은 행려병자들의 일상용품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기구 구입등의 비용으로 쓰인다. 051)879-1971

## 병원 불자련 결성 추진

**5곳 14일 합동성지순례**  
**12월 실무모임...내년 발족**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립경향병원직원불자회, 경희의료원 경향회, 국립의료원법우회, 서울국립정신병원불자회, 한일병원 불자회는 14일 마곡사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갖고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을 위한 친목을 다졌다. 10월에 있던 병원불자연합회 준비모임에 이어 마련된 이날 성지순례는 50여 명의 병원불자회 회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곡사 참배 및 순례에 이어 이화주 교법사(명성여고, 서울국립정신병원불자회 지도법사)의 집전으로 기도정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립경향병원직원불자회 김장숙 부회장(물리치료실 실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복 받은 사람들이다”며 “열린마음으로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또 “병원불자연합회 결성에 힘을 모아 서로 앞에서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도반이 되자”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황보주 회장은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금강경>과 <반야심경> 등을 쓴 서예작품을 선물했다. 이날 참석한 병원불자회는 12월 초 실무자 모임을 한번 더 갖고 내년 초에는 연합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문의: 0344)917-9224 팩스: 0344)918-9224 전자우편: mbook@netsgo.com

#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 당신, 이 아름다운 삶을 마주한 적 있는가!

다시 산중(山中)으로 돌아가며

가을이 한창 산문을 물들이던 어느날,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고산 큰스님은 노구를 탁마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짧은 기자회견만으로 조계사를 떠나셨습니다. 고산 큰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피할수 없었던 중단분규로 인해 또 한 분의 큰 어른을 잃었다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우리는 또 어느 세월, 어떤 스승을 만나 이 풍진 세상의 화두를 찾아낼 수 있을런지요.

산, 그보다 푸르고 깊은 마음을 담아

당신은 버리고 떠남으로서 찾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산중으로 돌아가시던 그날, 유난히 컸던 대웅전 부처님과 환승식에 모인 사람들은 더이상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가을비가 당신의 발걸음만 가볍게 적어줄 뿐. 그날 이후로 당신을 마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나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나

이 책에는 오로지 수행자라는 외길로 일생을 살아온 고산 큰스님의 절박한 삶과 부처님 이야기를 통한 잔잔한 가르침이 지혜롭고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쉽게 큰스님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새 천년, 새로운 삶을 위해 서라면 더욱 큰스님이 육필로 남기신 이 고마운 법문을 기대하시기도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가격 7,500원 / 국판/260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한국 사색의 뜻 있는 주지스님들과 불자분들의 깊은 법보시를 기다립니다.

• 도서판매의 수익금 중 일부는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 도서권리 문경새재로 인력을 주시면, 이 병 기록도 지원하시는 큰스님의 뜻에 따라 발인행사를 감행합니다.